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ore boost to product tankers as sole New Zealand refinery advances closure plan

Refining NZ가 뉴질랜드 내 정유공장을 연료수입 터미널로 변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PC선(Product Carrier) 톤마일(Tonne Miles)이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작업을 시작했으며 총 비용과 공정기간등을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SY: Australian refinery closures add 67bn tonne miles to regional tanker demand

지난 7년여에 걸친 호주 내 정유공장 폐쇄는 약 670억톤마일의 원유거래로 이어졌다고 보도됨. 현재 호주는 1) 정유산업을 살릴것인지, 2)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연료를 수입할것인지 놓고 결정을 내려야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렀다고 보도됨. (TradeWinds)

Venture Global delays Louisiana Plaquemines LNG export FID to 2021

Sempra Energy의 Costa Azul LNG 플랜트 프로젝트는 2020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추진되는 수출프로젝트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보도됨. Venture Global이 Plaquemines(Louisiana) 프로젝트 계획을 1년가량 지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Upstream)

두산중공업, SK건설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 '맞손'

두산중공업은 SK건설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SK건설은 사업계획과 인허가를 포함한 풍력발전 단지 개발을 수행하고, 두산중공업은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설비 제작을 위한 기술 개발을 맡는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두산인프라코어, 소송 걱정없는 `클린컴퍼니`로 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4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본입찰을 진행한다고 보도됨. 최근 두산그룹은 법무법인을 통해 숏리스트 선정 기업에 "DICC 소송 리스크 전가 없이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매일경제)

IMO가 어떤 결정을 내렸기에?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MARPOL AnnexVI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됨. 2030년까지 선박의 탄소밀집도를 40%를 줄이기 위한 합의안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